

최치원 서사와 해인사 문화경관의 상호텍스트성 연구(Ⅱ)*

- 한시를 대상으로 -

노성미**

|| 차례 ||

- I. 머리말
- II. 문화경관의 역사적 기억 읽기
- III. 추상적 텍스트의 의미 재현
- IV. 맺음말

【국문초록】

해인사는 최치원의 은둔이라는 역사적 실재와 선화(仙化)의 전설에 의해 하나의 문화경관으로 자리하게 된다. 시인에게 독서당, 시석(詩石), 취적봉, 광풍뢰, 제월담, 무릉교 등의 경관은 최치원 서사를 읽는 텍스트가 된다. 시인은 이들 텍스트에서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환기하고 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시에 구현한다. 최치원 서사와 문화경관은 상호텍스트로 작용하면서 시의 주제를 구축한다.

다른 한편, 최치원의 은둔과 선화의 서사와 추상적 텍스트의 상호작용이 보인다. 최치원의 해인사 은둔은 맑고 고결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신선과 낙원의 문학적 원형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상징은 학, 백운, 옥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334)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통소, 복사꽃 등이다. 홍류동에 떠나려 온 복사꽃은 상류의 낙원과 하류의 인간 세상을 구분하는 지표가 된다. 시인은 자신이 인지한 최치원 서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미 습득한 보편적 지식으로서의 문학적 원형 또는 상징을 끌어와서 하나의 그물망 안에 재현한 것이다.

최치원은 역사인물이지만 그의 행적은 신화의 세계에 편입되어 있다. 집단 기억은 문학 속에서 어떤 상징으로 기억되고 전해진다. 해인사 문화경관을 읊은 한시는 최치원의 은둔서사와 경관, 문학적 원형과의 상호텍스트성 속에서 의미를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주제어 : 최치원, 해인사, 문화경관, 상호텍스트, 신선, 낙원, 문학적 원형

1. 머리말

본고는 「최치원 서사와 해인사 문화경관의 상호텍스트성 연구(I)-가야산 유람록을 중심으로」¹⁾에 이어, 한시에 나타난 서사와 경관과 문학적 원형의 상호 텍스트성을 밝히고자 한다.

가야산 해인사는 고운 최치원(857~?)이 관직에서 물러나 각지를 유랑하다가 마지막으로 은둔한 곳이다. 그는 898년(효공 2) 2월 해인사에 입산하여 908년(효공 12) 10월 「신라호국성팔각등루기」를 찬술할 때까지 10년 동안 해인사에 머물렀다.²⁾ 해인사에는 독서당, <제가야산독서

1) 선행 연구를 통해 가야산유람록과 최치원 서사와 해인사문화경관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유람문화의 현장성과 관계되는 ‘서사→스토리→담화→경관’의 흐름이 있고, 경관이 유람록의 서사로 귀착되는 ‘경관→담화→스토리→서사’의 흐름이 각각 문학텍스트 생성에 관계하고 있음을 밝혔다.(노성미, “최치원 서사와 해인사 문화경관의 상호텍스트성 연구(I)-가야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4(한국문학회, 2020. 4)

당> 시석(詩石), ‘紅流洞’ 각석, 취적봉, 채필암 등의 바위와 광풍뢰, 제월담 등의 여울, 무릉교, 첩석대, 해인사 묘길상탑, 유상곡수지, 학사대, 영정, 해인사 관련 저술³⁾ 등 최치원 서사를 담고 있는 풍부한 경관이 있다. 이들은 최치원 서사를 읽는 텍스트가 된다. 이들 텍스트는 유람록과 한시 창작의 원천 자료가 된다. 또 유람록과 한시는 경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다른 유람록과 한시를 창작하는 동기를 제공하면서 문학적 재생산을 촉진했다.

최치원을 읽는 텍스트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가야산 해인사 주변의 경관을 해인사 문화경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문화경관재단에서는 ‘문화경관’을 역사적 사건, 활동 또는 인물과 연관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리적 영역으로 정의⁴⁾하고 있다. 해인사의 지리적 영역은 자연자원에 최치원의 은둔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더해져서 주제가 있는 문화경관이 된다. 본고는 해인사 문화경관과 서사와 문학적 원형이 어떻게 상호텍스트성을 보이면서 최치원의 의미를 드러내고 재생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인사 문화경관은 김일손의 「가야산해인사조현당기」(1490)에서부터 이미 최치원의 상징으로 읽히고 있다.⁵⁾ 연구자는 가야산유람록에

2) 장일규, 『최치원의 사화사상 연구』, 신서원, 2008. pp.193-195 참조.

3) 최치원의 해인사 관련 저술은 해인사 입산 이전의 「해인사묘길상탑기」(895)와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량기」(898),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원주벽기」(900), 「석순웅전」·「석이정전」·「부석존자전」(901~904), 「법장화상전」(904) 등이 있다.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908)를 끝으로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해인사에 서의 그의 위상과 해인사 승려인 형 현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그를 ‘신선이 된’ 전설의 인물로 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손호기, “문화경관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외식”(경북대학교대학원 조경학박사 학위논문, 2007), P.8 재인용.

나타난 서사와 경관의 상호텍스트성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시에 나타난 상호텍스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은 『한국문집총간』 소재 한시와 농산정 편역 시 중에서 최치원 서사와 관련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최치원의 역사적 행적에 대한 서사적 목소리가 어떻게 경관에 부여되고 있으며, 경관에 내재된 최치원 서사를 시인이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규명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경관의 체험이라는 현장론적 해석이 수반될 때 생생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록 등 가능한 한 자료에 기대어 한시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 연구는 작품의 생성과 경관의 의미 전승을 해석하는데 기여하고, 역사인물이 신화적 세계에 편입되어 전승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화경관의 역사적 기억 읽기

최치원의 역사적 행적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게 하는 경관과 시인에 의해 생각된 문학 작품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텍스트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롤랑 바르트와 로트만의 ‘텍스트’와 ‘작품’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롤랑 바르트⁵⁾에 의하면, 작품은 실재적인 것이지만 텍스트는 언어적인 담론 형태, 행위나 생산 차원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텍

5) 노성미, 『가야산에서 최치원을 낚다』, 고운국제교류사업회, 2019. pp.16-24 참조.

6) 롤랑 바르트(1971), 『작품에서 텍스트로』, 『작가란 무엇인가』, 박인기 편역, 지식산업사, 1997, pp.149-58 참조.

스트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각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문학 작품은 텍스트에 비해 명확한 의미를 구축하고 있다. 텍스트는 장르 구분을 할 수 없으며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원 텍스트를 회복한다. 이에 비하여 작품은 저자에 의해 규정된 의미다. 바르트는 이를 ‘소비적인 작품, 놀이와 생산을 하는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다.

로트만은 예술적 의미 형성물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의존성 내지 그것의 역사적 가변성으로부터 ‘텍스트’와 ‘작품’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텍스트’ 개념은 단지 물질적 기호 형상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는 비어 있고 매번 구체적 수용과정에서 하나의 의미구조로서 완성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는 아직 불완전한 무시간적 형상물이므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텍스트’는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사상이 생겨날 수 있는 규정되지 않은 실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작품’은 텍스트와 그 텍스트 의미를 읽는 독자 사이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과정의 산물⁷⁾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인사 문화경관에 포함된 의미로 규정될 수 없는 텍스트들은 시인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시로 귀착되고 독립된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다.

『해인사사적』⁸⁾ 「해인사선안주원벽기」의 말미에 무릉교, 학사대, 칠성대, 홍류동, 체필암, 음풍뢰, 취적봉, 완재암, 광풍뢰, 제월담, 분옥폭, 낙화담, 첩석대가 기록되어 있다. 최치원이 지은 「순응화상찬」, 「이정화

7) 허창운 편, 『현대문예학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89. pp.294-95 참조.

8)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최치원이 천령군수와 알찬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의 기록이다.

상영정찬』과 함께 실려 있는데, 주석에 찬술자 ‘방로대감천령군수알찬 최치원⁹⁾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해인사 13명소의 최초 명명자를 최치원으로 전하게 된 것이다.

가야산 유람록에는 해인사 문화경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담론들이 이 사적들을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유람의 동기가 서술되고 있다. “돌 면에 조정 인물의 반이 다 있다.” 할 만큼 많은 유람객들이 해인사문화경관을 찾고 그들의 방명을 바위마다 새겼다. 그리고 유람 도중의 숙소 또는 편지에서 최치원에 대한 담론의 장이 펼쳐지고, 경관을 마주 한 시점에서 지난 담론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토로하면서 여정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화경관은 시인이 기억하는 역사를 환기하는 텍스트가 된다.

해인사 문화경관은 최치원의 은둔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물이며 이들 텍스트는 시인의 기억에 의해 환기되어 시 속에 구현된다.

해인사 문화경관에서 텍스트 읽기가 시에 나타난 것은 조선 전기 정극인의 「고운을 생각하며」¹⁰⁾에서 시작된다.

林間冠履去茫茫	숲 사이 갖과 신을 벗어놓고 아득히 사라지니
誰識儒仙本不亡	그 누가 알리오, 유선이 본디 죽지 않았음을.
流水籠山吟已遠	흐르는 물로 산을 두른다고 읊은 지 이미 옛날인데
風雲猶護讀書堂	바람과 구름만이 오직 독서당을 감싸고 있네.

9) 이호훈(1777~1830),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 『진천집』

10) 정극인(1401~1481), 「고운을 생각하며-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 놀며 짓다(憶孤雲-陝陝川伽倻山海印寺作)」, 『불우현집』 권1.

시인은 홍류동의 독서당을 텍스트로 하여 거기에 담긴 최치원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숲 사이 갓과 신을 벗어놓고 사라진 최치원 전설과 그가 유선(儒仙)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았다는 것과 <제가야산독서당>의 결구인 ‘故教流水盡籠山’까지 시행에 들어와 있다. 독서당이라는 구체적인 텍스트가 지닌 역사성을 시인이 읽어내고 이를 시 속에 담아낸 것이다.

최치원의 선화(仙化)에 대한 기록은 이인로(1152~1220)의 『과한집』 「문창공최치원」이 가장 오래되었다. “가야산에 숨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가서는 돌아온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세상에 전하기를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둔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을 나갔다. 갓과 신발을 수풀 사이에 남기고 돌아온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 서유구(1764~1845)의 「교인계원필경집서」에 “혹은 우화등선(羽化登仙)했다고 기록되었다.”고 한 것으로 계승된다. 선화(仙化)의 서사는 이후 가야산 유람록, 한시, 부(賦)에서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김일손은 「해인사조현당기」¹¹⁾에서 그가 가야산을 찾고 싶었던 이유를 가야산이 최치원이 죽은 곳에서 찾고 있다. “반드시 경치가 기묘하고 빼어나서 그런 신선이 머물렀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야산을 최치원의 상징으로 읽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이의 가야산 인식¹²⁾에도 계승된다. 김일손이 1490년 가야산을 찾았고 이이는 1557년 가야산을 유

11) 김일손(1464~1498), 「조현당기」, 『탁영선생문집』

12) 이이(1536~1584), 「유가야산부」, 『울곡선생전서습유』. “아, 알겠소. 상계의 선인인 신라 학사로서 세상에서 유선이라 일컫는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닌가요? 신선이 미소를 지으면서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네.”라고 하여 가야산에서 느낀 감상을 적는데 학을 타고 내려온 신선 최치원을 꿈속에서 만나는 극적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그의 의식 속에서 가야산은 최치원 신선의 높은 자취를 만나는 곳으로 그려진다.

람하고 부(賦)를 지었으니 그들의 역사 시간은 67년이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화의 서사는 텍스트의 핵심적인 주제로 전승된다. 최치원의 은둔과 선화는 스토리와 담화의 층위에서 활발하게 재생산 되면서 경관과 서사를 오가¹³⁾면서 유람록, 한시, 부(賦) 속에 지속적으로 자리하게 된다.

김중직의 「고운의 운을 따서 시석에 붙이다」¹⁴⁾는 홍류동에 있는 독서당 시석이 중심 텍스트이다.

淸詩光燄射蒼巒 맑은 시의 세찬 기세는 푸른 산을 쏘는데
墨漬餘痕闕泐間 먹물 흔적은 닳아버린 돌 위에 희미하여라.
世上但云尸解去 세상에서는 단지 시해되어 갔다고 하지만
那知馬鬣在空山 어찌 알겠는가, 무덤이 빈산에 있을 줄을.

최치원의 시석은 오랜 세월 물살에 닳아버리고 글씨는 돌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시의 기운은 세차서 푸른 산을 쏘는 것 같다고 했다. 시인은 시석(詩石) 자체가 최치원의 정신이며 그 정신은 세찬 기세로 해석했다. 이구의¹⁵⁾는 두 번째 구절을 “글씨의 자취 시냇물 가운데 남아 있네.”로 해석하고 그 글씨를 ‘홍류동’ 각석이라고 했다. ‘특(泐)’은 ‘돌이 풍화작용으로 자연히 부서짐’의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시의 세찬 기세’를 말하고 있으므로 독서당 앞의 시석을 텍스트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홍류동’ 각석은 태풍에 떨어져나간 글자가 있긴 하지만 남은 글자는 지금도 형체가 또렷하므로 텍스트의 상태와도 일치하지

13) 노성미(2020), 앞의 논문, pp.81-91 참조.

14) 김중직(1431~1492), 「고운의 운을 따서 시석에 붙이다(題詩石用孤雲韻)」, 『점필재집(佔畢齋集)』 권14.

15) 이구의(2007), 앞의 논문, pp.58-59.

않는다. <제가야산독서당> 시의 기운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푸른 산을 쓸 정도로 세차지만 세월이 오래된 시석은 낡아 희미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화자는 독서당 시석을 경험하면서 최치원의 선화(仙化)를 떠올리고 있다. 시해(尸解)¹⁶⁾는 시해선(尸解仙)이 되었다는 뜻으로 최치원이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선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운 신선이 공산(空山), 즉 ‘사람 없는 산중’에 지금도 있다는 뜻이다. ‘마렵(馬鬣)’을 ‘말 수염¹⁷⁾’으로 해석하면 그가 신선이 되어 가야산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인식과 모순된다. 여기서 ‘마렵’은 무덤을 의미하며 그의 무덤이 빈산(空山)에 있다는 뜻이다. 무덤은 구체적인 분묘로서의 무덤이 아니라 신선이 되어 사람 없는 산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종직은 가야산 홍류동의 최치원 시석에서 역사의 아득함과 경관의 변화를 연결 지어 생각하면서 최치원이 가야산에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산에 있음을 알아차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무릉교는 최치원이 명명하고 글씨를 새긴 것으로 전해진다. 허목은 “골짜기를 나오면 무릉교와 칠성대가 있으니 모두 학사의 큰 글씨를 돌에 새기었다.”¹⁸⁾고 했다. 이후 많은 유람객들이 무릉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 도교에서 선인(仙人)이 되는 방법의 하나. 진나라 갈홍의 『포박자』에서는 현세의 육체인 채로 허공으로 올라가는 것을 천선(天仙), 명산에서 노는 것을 지선(地仙), 일단 죽은 후에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선인이 되는 것을 시해선(尸解仙)이라고 하여서 시해선을 하위에 둔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도홍경이 완성한 모산파 도교에서는 이 시해를 등선(登仙)의 방법으로서 중시하고, 검을 신체 대신에 현세에 남겨서 선인이 되는 검해법(劍解法)을 중시했다. 『종교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8) ‘시해’ 참조

17) 이구위의(2007), p.58에서는 “어찌 말 수염이 빈산에 남아 있는 줄을 알리오”로 해석했다.

18) 허목(1595~1682), 『가야산기』, 『기언』

돌을 연결하여 공중에 다리를 만들었는데, 형상이 기다란 무지개 같았다. 또 돌을 더듬어 용 세 마리의 머리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머리를 늘어 뜨려 물을 마시는 형상이었다. 용의 입에는 풍경을 매달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났다.(정식, 1725)¹⁹⁾

무릉교에 이르니 옛날 계유년에 불 때는 돌을 깎아 용을 새기어 머리를 드러내고 허리를 가로로 누웠었는데, 크기는 백 척이며 그 길이는 세 칸으로 활 모양으로 둥글게 솟아 무지개를 일으키고 돌돌 따리를 틀어 파도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을 쓸어버린 듯 흔적이 없다. 대개 신축년 8월 5일 홍수가 난 뒤의 일이다.(하진태, 1790)²⁰⁾

해인사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무릉교가 있고 이것은 천년 된 돌 다리로서 최치원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는 텍스트이다. 비록 천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무릉교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태풍에 다리가 소실되었지만 ‘무릉교’라 새긴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릉교 잔해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최치원의 역사를 기억해낸 것이다.

김창흡의 「가야산 홍류동」²¹⁾은 무릉교의 역사적 기억을 시에 담아냈다.

孤雲無跡亂峯高 고운의 자취는 사라지고 봉우리만 높은데
玉洞明花半是桃 맑은 골짜기 환히 비치는 꽃 반은 복사꽃이네.

19) 정식의 「가야산록」(1725)과 김도수의 「남유기」(1727)에는 “풍경이 달렸는데, 바람에 패옥이 쟁그랑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가룻의 새와 같다.”고 하여 무릉교 장식의 정교함까지 기록하고 있다.

20) 하진태, 「유가야록」, 『행정문집』에는 이름은 있고 실상이 없는 무릉교라 했다. 지금은 태풍으로 다리가 유살되고 없지만 그가 예전에 본 기억을 더듬어 형상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21) 김창흡(1653~1722), 「가야산 홍류동(伽倻山 紅流洞)」, 『삼연집』 습유 권7.

千載石橋名不滅 천년 된 돌다리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一源春水與周遭 한 근원의 봄물이 두루 돌아다니며 만나네.

홍류동은 해인사로 들어가는 길과 나란히 있다. 홍류동 입구에 있는 무릉교는 해인사 경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이기도 했다. 화자는 무릉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흘러내린 골짜기 물이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서로 만나는 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이 갖는 영원성을 생각하고 있다.

심일삼의 「가야산에 노닐며 어촌 양훤과 최학사의 시에 차운함」²²⁾은 취적봉, 광풍뢰, 제월담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

閒驅快馬歷層巒 한가로이 말을 몰아 겹겹산 지나서
 吹笛光風霽月間 취적봉 광풍뢰 제월담 사이로 가네.
 白鶴一雙來又去 백학 한 쌍이 왔다가 또 가니
 劫疑方丈卽儂山 아마도 신선 사는 곳 가야산이 아닌지.

해인사 홍류문과 낙화담 사이에 이들 경관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취적봉이 솟아 있고, 왼쪽 골짜기 안에 너럭바위 완재암, 체필암이 있고, 광풍뢰, 제월담, 분옥폭 등의 여울이 있다. 이들 경관은 1920년대 관광엽서에 사진으로 등장할 만큼 유명한 경관이다. 이들 경관은 돌에 새긴 필체까지 유람객의 관심 대상이었다.

낙화담을 지나 분옥폭에 이르렀다. 음풍뢰, 완재암, 제월담, 광풍뢰를 보니 모두 최치원이 이름 붙인 곳으로 지금도 바위에는 자획이 완연하여 난

22) 심일삼(1615~1691), 「가야산에 노닐며 어촌 양훤과 최학사의 시에 차운함(遊伽倻山與楊漁村叵次崔學士韻)」, 『청기세고』 권3.

새와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 같으니, 최치원이 쓴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신필청, 1681)²³⁾

신필청은 이들 경관이 최치원의 명명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1727년 김도수 등의 유람록²⁴⁾에는 이들 경관의 역사성을 읽는 유람객의 분분한 해석을 볼 수 있다. 심일삼은 취적봉 봉우리에 백학 한쌍이 왔다가 가는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텍스트에서 신선이 된 최치원 서사를 읽어내고 있다.

이건창의 「농산정에서 고운의 시를 차운하다」²⁵⁾도 독서당 시석이 담고 있는 최치원 서사를 읽어내고 있다.

百丈紅流萬疊巒 백길 홍류동에 만첩 봉우리 있는데
神仙詩句墮人間 신선의 시구가 인간 세상에 떨어졌네.
白雲一片孤飛去 흰 구름 한 조각 외로이 날아가니
疑是先生尙在山 선생께서 산에 계신 것은 아닌지.

홍류동에 있는 독서당 시석은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 시이면서 그의 필적이므로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최치원 서사가 강력하게 응축되어 있다. 가야산과 해인사 경관을 읊은 시 중에서 최치원의 독서

23) 신필청, 「유가야산록」(『죽헌문집』)에는 “체필암과 음풍뢰는 진산 강희맹이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만성(1659~1722)의 「유가야산록」(『독산문집』)과 성해응(1760~1839)의 「기영남산수 가야산」(『연경재진잡』)에서는 음풍뢰와 체필암의 글씨가 강희맹의 글씨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로써 이들 경관에 대한 역사적 고증에까지 많은 담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 김도수, 「남유기」, 『춘주유고』; 노성미, 『가야산에서 최치원을 뉘다』, pp.342-272 참조.

25) 이건창(1852~1898), 「농산정에서 고운의 시를 차운하다(籠山亭 次孤雲韻)」, 『명미당집』 권3.

당시를 차운한 것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견창은 독서당 시석을 인간 세상에 떨어진 신선의 물건으로 해석했다. 바위에 시를 새긴 것과 신선이 된 것의 시간적 순서가 도치되면서 최치원이 신선이 되었다는 서사를 의식하면서 그가 남긴 시석이 신선이 인간 세계에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흰 구름 한 조각’에서 ‘고운(孤雲)’을 상기하도록 하고 ‘선생께서 가야산에 계신 것은 아닌지’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텍스트에서 작가가 읽어낸 역사의 기억이다.

해인사 문화경관 속에 있는 텍스트는 독서당, 시석, 여울, 대(臺), 정자, 바위 등의 물질적인 기호 형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작가의 언어적인 담론 형태, 행위나 생산 차원으로 경험되면서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읽도록 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통해 역사적 기억과 담론을 환기하는 구체적인 수용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의미구조로서 시에 구현된다. 따라서 텍스트에서 환기된 최치원의 기억은 작가에 의해 읽히고 해석된 의미다.

III. 추상적 텍스트의 의미 재현

구체적 경관에서 읽어낸 최치원 서사의 한 축과 달리, 추상적 텍스트, 즉 문학적 원형 또는 상징이 시에 작용하여 최치원 서사의 의미를 재현하는 또 하나의 축이 존재한다. 이 경우 최치원의 은둔과 선화의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원형을 관계의 그물 속에 끌어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작가는 텍스트 읽기와 이해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선행 작품들과 영향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된다.

이황은 「가야산을 바라보며」²⁶⁾에서 최치원의 선화를 신선의 문학적 상징으로 재현하고 있다. 신선 최치원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신령(神靈)’, ‘이적(異跡)’, ‘선가(仙家)’, ‘최선(崔仙)’, ‘현단(玄壇)’, ‘지초(芝草)’, ‘단사(丹砂)’ 등의 시어를 사용했다.

紅流洞裏青竹杖	홍류동 안에서 청죽장을 짚고
喚起崔仙從以萬素娥	최선을 불러 선녀들 거느리고 오라 하여
彈伽琴弄雲月	가야금 타게 하고 음풍농월하면서
一醉千日遊無何	한번 취해 천일을 무하에서 놀아보세.

홍류동의 아름다운 경관에 취한 화자는 시의 마지막에 이르자 자신이 청죽장을 짚고 홍류동에 서서 신선 최치원을 부르고, 그에게 선녀들을 거느리고 오게 하여 거문고를 타게 하고 음풍농월하면서 무하(無何)에서 놀아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에서 취흥의 정서가 절정에 이른다. ‘무하’는 ‘無何有’로 ‘아무 것도 없음’을 뜻하고 ‘무하유지향’²⁷⁾은 장자가 추구한 무위자연의 이상향을 말한다. 화자는 홍류동에서 최치원 신선과 선녀들과 가야금을 연주하며 어떤 인위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낙토를 즐기며 달빛에 취하고 싶다는 것이다.

황준량의 「가야산에서 김모재의 시에 차운하다」²⁸⁾에는 ‘학’을 통해

26) 이황(1501~1570), 「가야산을 바라보며(望伽倻山)」, 『퇴계선생문집별집』 권1. 퇴계는 1533년(33세)에 가야산을 찾았다.

27) 『장자』, 『소요유』, 『응제왕』, 『지북유』 등 여러 곳에 나오는 말이다.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말로, 이른바 무위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 도래하는, 생사가 없고 시비가 없으며 지식도, 마음도, 하는 것도 없는 참으로 행복한 곳 또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http://www.doopedia.co.kr>)

28) 황준량(1517~1563), 「가야산에서 김모재의 시에 차운하다(伽倻山次金慕齋韻)」, 『모재선생집』 권1. 김모재는 김안국(1478~1543)으로 모재는 그의 호다.

최치원의 선화를 표현한다.

亂磴縈回滿履苔 굽이굽이 돌길을 돌아가니 신에 이끼 가득하고
玉簫吹徹鶴徘徊 옥피리 소리 하늘에 떨치니 학이 와서 노니네.
崔仙一去無消息 최씨 신선 한 번 간 뒤로 소식이 없는데
黃葉西風月滿臺 낙엽은 서풍에 날리고 달빛만 대에 가득하네.

‘난등(亂磴)’은 어지러운 돌 비탈길이고 ‘영회(縈回)’는 둘러 싸다는 뜻이다. 화자는 고운의 자취를 찾아 굽이지고 힘든 길을 올라왔다. 그곳에서 하늘을 꿰뚫을 것 같은 옥피리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에 감응하여 학이 내려와 노니는 풍경을 그려낸다.²⁹⁾ 신선은 학을 타고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것이니 신선의 전형적인 상징인 학에 최치원의 서사를 담아낸 것이다. 박 인은 「가야산에 올라 주자의 축융봉 시에 차운함」에서 “생학이 훨훨 나는 상계(上界)”³⁰⁾로 표현했다.

최치원의 은둔 공간은 낙원의 원형에 근거하고 있다. 낙원을 상징하는 동양적 원형은 「도화원기」³¹⁾의 무릉도원이다. 무릉도원은 그 단어가 출현한 이후로 후세의 모든 동양인에게 이상향의 대명사로 각인된 가장 대표적인 ‘낙원’ 모델³²⁾이다. 문학에서 무릉도원은 세속과 구분되

29) 이구의, 「한시에 나타난 가야산의 형상」, 『한국사상과 문화』 7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103쪽에는 승구를 “옥통소 그치자 학이 와서 춤을 추네.”로 해석했다. 소리가 그치고 학이 춤추는 것보다는 ‘徹’을 통소 소리가 공중을 뚫고 하늘에 닿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적 상황에 어울린다.

30) 박 인(1583~1640), 「가야산에 올라 주자의 축융봉 시에 차운함(登伽鄒山 次朱子祝融峯韻)」, 『무민당선생문집』 권1.

31) 도연명(365~427)의 작품. 도연명은 중국 동진 말기부터 남조의 송대 초기에 걸쳐 살았던 중국의 대표적 시인이다. 「도화원기」는 ‘무릉도원=이상향’의 전형을 문학사에 남겼다.

32) 김용표, 「제임스 힐튼의 ‘샹그릴라’에 투영된 낙원을 향한 노스텔지어-도연명 ‘무

는 낙원의 문학적 전형을 제공하고 있다.

독서당 시의 “흐르는 물소리로 온 산을 두르고 세상의 시비소리를 막으려 했던” 세속과의 단절은 가야산 홍류동을 무릉도원의 낙원에 수렴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독서당 시에 구현된 은둔의 서사가 낙원의 문학적 전형과 만나면서 경관의 아름다움과 최치원의 고결한 삶을 그려낸다.

주세붕의 「시석에서 고운의 시를 차운하다」³³⁾는 낙원의 서사를 담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激激清泉疊疊巒 팔팔 맑은 샘물 첩첩한 산봉우리
 由來此地是仙間 예로부터 이곳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네.
 孤雲一去無尋處 고운이 한번 가버리고 찾을 곳이 없는데
 只有浮花流出山 다만 꽃잎만 떠서 산에서 흘러오네.

경관을 표현하면서 독서당 시의 기구인 “狂奔疊石吼重巒”를 끌어와 낙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홍류동의 바위 사이를 돌아 흐르며 부딪치는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세상의 시비소리는 골짜기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곳에 최치원 신선이 살고 있다. 그러나 고운은 만날 수 없고 다만 산에서 흘러오는 꽃잎만 있을 뿐이다. ‘浮花’는 물을 따라 두둥실 떠 내려 오는 꽃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꽃이 만발한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임억령의 「가야산에서 고운이 글을 새긴 바위 시에서 차운하다」³⁴⁾는

릉도원'과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학연구』 46, 중국학연구회, 2008, 107쪽.

33) 주세붕, 「시석에서 고운의 시를 차운하다(題詩石 次孤雲韻)」, 『무릉잡고』 권20.

34) 임억령(1496~1568), 「가야산에서 고운이 글을 새긴 바위 시에서 차운하다(伽倻山

‘도연명’이라는 구체적인 언표를 통해 낙원의 서사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四月山風吹翠巒 사월의 산바람 푸른 산에 불어오니
 落花隨水到人間 낙화가 물 따라 인간 세상에 나왔네.
 深知不及陶元亮 내 도연명에 미치지 못함 깊이 알았으니
 一宿山中便出山 하룻밤 산속에 묵고 바로 산을 나왔네.
 聞道孤雲棲碧巒 고운이 푸른 산에 깃들어 도를 깨달았다는데
 淸涼寺下屋三間 청량사 아래 세 칸 집이라 하네.
 飄然十島無尋處 표연히 선계로 가버려 찾을 곳 없으니
 愁倚寒松雨滿山 시름하며 찬 숲에 기대니 산 가득 비 내리네.

홍류동은 최치원의 독서당이 있던 곳이고 그가 새긴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이 있는 곳이다. 독서당은 이후 고운영당으로 사용되다가 퇴락하였다. 그곳에 농산정을 세웠고³⁵⁾ 농산정은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시석이 마멸되자 ‘치원대’와 ‘孤雲崔先生遁世址’ 표지석을 세웠다.³⁶⁾ 이렇게 한 장소는 모양을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장소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 기억의 유지에 동참하는 것이고 가야산 시를 짓는 일은 이러한 집단적

次孤雲書巖小絕韻), 『석천선생시집』 권7.

35) 『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함천 고적, 「고운선생 사적, 「해인사」에 “농산정 정자 뒤로 몇 길을 떨어져서 고운의 영당(影堂)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정자 앞에 비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운최선생둔세지’ 비석에는 “원정자의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지금의 것은 고운 선생의 후손과 유림에 의해 1936년에 중건된 것이다.”고 했다. 독서당, 고운영당, 농산정, 시석의 생성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36) 노성미,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76, 한국문화회, 2017, pp.178-183에서 최치원의 홍류동 독서당과 시석의 생성, 변화 과정을 고증했다.

기억에 동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사월의 바람 따라 인간세상으로 흘러 내려온 ‘낙화’를 본다. 그 꽃이 있는 곳은 물을 거슬러 가면 있는 세상이고 아래의 인간세상과 구분된다. 화자는 하룻밤 산속에서 묵으면서 사색한다. 그 결과 자신이 도연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고 다음날 바로 산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고운이 도를 깨닫고는 선계로 올라가버려서 지금은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찬 소나무에 기대어 우수에 젖어보는데, 온 산 가득 비가 내리는 풍경이 펼쳐진다. 도연명과 고운 최치원이 선계의 존재로 그려지고, 자신은 세상에 뜻을 두어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이러한 시상에 젖도록 한 것은 물을 따라 떠내려 온 꽃이고 이것은 최치원의 은둔 서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만상의 「농산정에서 현판시에 차운함」³⁷⁾는 농산정 현판 시에 차운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화원기」의 낙원 서사가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雲霞骨角聳層巒 구름 사이로 우뚝한 봉우리 솟아있고
瀛島方蓬盡此間 신선 세계는 모두 여기에 있네.
終使紅流塵世去 끝내 홍류동이 속세로 흘러가면
漁人爭到武陵山 어부들은 다투어 무릉산에 이르리라.

화자가 목격한 가야산 경관을 그대로 무릉도원의 낙원으로 표현했다. 우뚝 높이 솟은 봉우리가 있는 홍류동 경관이 바로 신선세계라고 했다. 다른 시에는 홍류동의 상류 어디쯤에 있는 무릉도원을 상상하지만, 이

37) 이만상(1857~1899), 「농산정에서 현판시에 차운함(籠山亭次板上韻)」, 『교재집』 권1.

시는 홍류동을 도연명이 은둔한 무릉도원으로 그려내고 있다. 최치원이 흐르는 물소리로 온 산을 둘러 세상의 시비소리가 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독서당 시의 서사가 그대로 재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최치원이 세상과 단절하고자 했어도 홍류동 물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니 그리 된다면 어부들이 다투어 무릉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어부들은 홍류동 밖의 세상사람, 무릉산은 가야산과 각각 짝을 맺고 있다. 이 시에서 낙원의 서사는 최치원이 은둔한 가야산과 동격으로 그려진다.

가야산 경관뿐만 아니라 은둔자가 기거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무릉도원에 비유한 것은 한시의 전통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최립의 「차운하여 하선생(賀先生)에 대한 감회를 적다」³⁸⁾에는 선인이 노닐던 바위 가엔 오늘도 햇별이 짹짹하고 도화원 동네 속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낙원을 그려낸다. 도화원에 봄바람이 불면 하선생의 혼백이 하늘에서 내려올 듯해서 길손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시 「여산(閔山)을 지나며」에도 “도화원이 이 골짜기에 있는 줄 알지만, 우인과 만날 약속 하지 못했네.”³⁹⁾라는 구절이 있는데, 역시 도연명의 은둔과 낙원의 전형을 차용한 것이다.

도연명의 도화원이 문화적 전형을 이름으로써 조선시대에는 도연명 관련 유무형의 문물자료⁴⁰⁾가 일대 유행처럼 증가했다. 도연명 관련 유

38) 최립(1539~1612), 「차운하여 하선생에 대한 감회를 적다」, 『간이집』 6권, ‘정축행록’. “維珣玕琪生山中 山之秀氣焉能窮 有來男子從南服 玉汝聰明成此翁 仙人巖畔長白日 桃花洞裏足春風 先生精爽應還往 過客遙瞻蒼翠空”

39) 최립, 위의 책, 「여산을 지나며」 중 “桃花知有洞 未與羽人期”

40) 歸來亭, 醉石亭, 悅話堂과 悅話亭, 晚歸亭, 瀟灑園, 雲鳥樓, 一石臺, 悠然堂, 寄傲軒, 今是齋, 武陵溪谷 등의 유적이거나 명승지는 모두 도연명 문화현상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며, 도연명의 작품 이름이나 작품 속에 나오는 구절 또는 삶의 의미를

무형의 문화현상들은 전통시대 독서인 일반에 공유되었고 이로써 은둔의 서사에서 복사꽃은 낙원의 원형으로 이해된다.

최치원은 「이전장관과 겨울날 산사에서 노닐며 화답하다」⁴¹⁾에서 “스님은 샘물 찾아 먹을 물 길어내고, 학은 오갈 때마다 술 위의 눈을 날리네. 일찍이 도연명의 시와 술을 알았으면, 세상의 명리를 모두 잊었을 것이라네.”라고 하여 도연명의 은둔 서사를 따와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이 시는 고운이 재당(在唐) 시기에 지었다. 그는 겨울날 산사에서 이전(李展) 장관과 노닐며 그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 장관은 최치원이 율수현위를 1년 만에 사직하고 유람하며 공부하던 시절 신세를 진 친구다. 이전은 우이현의 장관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최치원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사의 풍경은 소나무 위에 학이 날고 산과 시내가 더 없이 아름다운 승경이다. 이러한 경관을 대하고는 자신이 도연명을 진작 알았다더라면 세상의 명리를 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치원은 도연명이 전원으로 돌아가 은둔한 서사를 떠올린 것이다.

최치원이 일찍이 도연명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문학의 전통시기 역사 속에서 도연명과 관련을 맺지 않은 문인 학자는 가히 전무했다고 이를 만하다.⁴²⁾ 이로써 한국문학사의 도연명 읽기는 최치원으로

함축하는 용어들은 그대로 조선 지식인의 自號, 堂號, 室名으로 사용되었다고 함으로써 도연명은 조선 지식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들어왔음을 증명하였다. 이남중 「조선시대 도연명시 수용 및 전범화 양상」, 『중국학보』 77, 한국중국학회, 2016, 114쪽.

41) 최치원, 「이전장관과 겨울날 산사에서 노닐며 화답하다(和李展長官冬日遊山寺)」, 『국역최선생문집』(경주최씨대종보편찬위원회, 1997). “僧尋泉脈敲氷汲 鶴起松梢擺雪飛 曾接陶公詩酒興 世途名利已忘機”

42) 이남중(2016), 앞의 논문, 113쪽.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고려 중기 무신집권 시기 이인로(1152~1220)를 비롯한 해좌칠현(海左七賢)의 문학 활동 등에서 「도화원기」를 모델로 삼은 도연명 수용 현상⁴³⁾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연명은 일찍부터 낯선 외국의 인물이 아니라 이미 친근한 우리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홍류동 경관 앞에 선 시인들도 경관에서 촉발되는 아름다움에서 최치원의 은둔을 떠올리고, 낙원의 이미지를 시에 구현해내는 것이다.

「도화원기」 속의 ‘낙원’은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느라 배를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다. 그곳은 “양쪽 강가에 끝없이 펼쳐진 복숭아 꽃밭”이 있고 “싱그러운 꽃잎이 바람에 어지러이 날리는” 황홀경으로 그려진다. 그곳은 강 아래쪽 인간세상의 시간의 몇 백 년 전의 시간이 멈춘 영원의 시간대에 속한다. 그리고 한번 나오면 다시는 찾아가지 못할 절대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해인사 홍류동이 낙원으로 읽힐 수 있었던 것은 최치원의 은둔의 역사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관의 아름다움과 은둔의 실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낙원의 문학적 원형이 작용한 것이다.

학, 백운, 복사꽃, 옥통소 등은 은둔과 신선의 문학적 상징이다. 이들은 원형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텍스트로 부를 수 있다. 이들은 보편적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시인이 해인사 문화경관을 경험하고 홍류동과

43) 이인로(1152~1220)는 도연명을 화작하여 「회귀거래사(和歸去來辭)」, 「지리산청학동기」를 지었다. 또 자신이 사는 집을 ‘와도현(臥陶軒)’이라 부르고 「와도현기(臥陶軒記)」를 짓고 그림으로 그려서 「와도현도자찬(臥陶軒圖自贊)」을 썼다. 비슷한 시기 이규보(1168~1241)는 도연명의 시를 읽고 감회를 적은 「찬도잠시(讚陶潛詩)」와 「도잠찬(陶潛贊)」을 지었다. 또 ‘백운거사’라 자호하고 스스로를 ‘옛 도연명의 부류’라고 하였다. 여말선초의 정도전(1342~1398)은 도연명을 일컬어 ‘우리 연명’이라 하였다. 이남중(2016), 앞의 논문, 113-114쪽 참고.

독서당 시석 등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이들 추상적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하게 인지된 텍스트에서 최치원의 은둔 서사를 읽어내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로써 역사적 사실에 상징을 부여하여 사실로써 증명할 수 없는 가치들을 보완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선화의 스토리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재구성할수록 역사적 실체로서의 최치원의 인격은 멀어진다. 그의 역사적 인격은 사라지고 단지 신선의 이미지로 재탄생된 허구적 인물로 시 속에 구현되는 것이다. 해인사 문화경관은 최치원의 해인사 은둔이라는 역사적 실체와 선화의 전설을 담고 있다. 한시에 구현된 최치원 서사가 얼마나 역사적 실체에 닿아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 이들은 허구가 된다. 그리고 문학적인 원형 속에 전승되는 은둔과 선화의 이미지를 시 속에 재현함으로써 서사와 경관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의미가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추상적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성이다.

원형공간은 문화의 전승을 통하여 후대에 동질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현될 때 문화경관의 영속성을 유지한다. 문화경관이 어느 시기에 번성하다가 다음 시대에 전승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화경관으로서 가치를 보존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공간이 원형의 문화경관과 전승되어진 문화경관과 중첩되어질 때 영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⁴⁾ 해인사 문화경관은 유람객의 담화와 시 속에 구현된 최치원의 은둔과 선화의 서사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승된다.

44) 이행렬, 「이계 조려의 은둔과 문화경관」, 『한국조경학회지』 39(2), 한국조경학회, 2011, p.85.

IV. 맺음말

해인사는 최치원의 은둔이라는 역사적 실제와 선화(仙化)의 전설에 의해 문화경관이 된다. 독서당, <제가야산독서당> 시석, 취적봉, 광풍뢰, 제월담, 무릉교 등의 구체적 경관은 최치원의 역사적 행적과 관련된 서사를 담고 있는 텍스트가 된다. 시인은 이들 텍스트를 대면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최치원 서사에 근거하여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환기하고 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시에 구현한다. 최치원 서사와 문화경관은 상호텍스트로 작용하면서 시의 주제를 구축한다.

다른 한편, 은둔과 선화의 서사는 추상적 텍스트와의 상호성 속에서도 확인된다. 최치원의 은둔은 맑고 고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것은 신선의 상징과 낙원의 문학적 원형에 수렴된다.

엘리아데⁴⁵⁾에 의하면, 역사적 사건이나 실제 인물에 대한 회상은 기껏해야 2,3세기 동안 밖에는 민간 기억 속에 존속하지 않는다. 민간 기억이 기능하는 구조는 사건 대신에 범주가, 역사적인 인물 대신에 원형이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인물은 그의 신화적인 모델과 동화되고, 역사적인 사건은 신화적인 행동의 범주와 일치된다. 최치원은 역사인물이지만 그의 행적은 신화의 세계에 편입되어 있다. 비역사적인 집단의 기억은 문학 속에서 어떤 상징으로 기억되고 전해진다. 해인사 문화경관을 읊은 한시는 최치원의 은둔 서사와 경관과 문학적 원형과의 상호텍스트성 속에서 의미를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45)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82, pp.71-72.

【참고문헌】

-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82, pp.71-72.
『조선왕조실록』 <http://www.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
- 김용표, 「제임스 힐튼의 '상그리라'에 투영된 낙원을 향한 노스텔지어 -도연명 '무릉도원'과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학연구』 제46집, 중국학연구회, 2008, pp.107-135.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호텍스트성」, 『서강영문학』 제2집, 서강영문학회, 1990.
노성미,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6집, 한국문학회, 2017, pp.175-200.
_____, 「최치원 서사와 해인사 문화경관의 상호텍스트성 연구(I) -가야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84집, 한국문학회, 2020, pp.77-106.
변성규, 「은일 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1999, pp.81-92.
손호기, 「문화경관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인식」, 경북대학교대학원 조경학박사 학위논문, 2007.
이구의, 「농산정 음영시에 나타난 최치원 인식(II): 문헌에 실려 있는 시의 경우」, 『한국사상과 문화』 제3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pp.43-71.
_____, 「한시에 나타난 가야산의 형상」, 『한국사상과 문화』 제7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pp.95-120.
이남중 「조선시대 도연명시 수용 및 전변화 양상」, 『중국학보』 제77집, 한국중국어학회, 2016, pp.113-154.
이행렬, 「어게 조려의 은둔과 문화경관」, 『한국조경학회지』 제39집(2), 한국조경학회, 2011, pp.73-90.
제여매, 「시와 서사학」, 『독어교육』 제49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010, pp.307-334.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textuality between Narratives about Choe Chiwon and the Cultural Landscapes of Haeinsa Temple (II)*

- Focusing on Chinese Poetry -

Rho, Seong-mi

In the Gayasan poetry, the narratives of seclusion and Choe Chiwon's transformation into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are embodied throughout different metaphorical devices. These narratives embodied in the poetry are transferred from the real world to the world of ideas by borrowing literary archetypes and epitomes that are set apart from historical reality. Choe Chiwon left many writings during his period of retirement at the Haeinsa temple, and his realistic life is far from the life of Muwijayeon. However, in poetry, his historical reality disappears and only the narrative of becoming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remains. The scenery of Mt. Gaya and the narrative of becoming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overlaps with the beautiful real scenery of Mt. Gaya and creates Gayasan, a land of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This is fixed as a symbol of Gayasan through the literary succession.

On the other hand, his seclusion narrative creates a clear and noble image, which is projected onto the landscape of Mt. Gaya and converges with the epitome of paradise, called Mureungdownon of Doyeonmyeong. In the Gayasan poetry, the fallen blossoms floating at Hongryudong is a symbol of the peach flowers of Mureungdownon. The flowers become an index that distinguishes between Mureungdownon in the upstream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1025334)

the human world in the downstream. Mureungdownon is a place that is meant to be only longed for, but not to be experienced as a real space, because it is a place that cannot be reached in spite of going upstream against the water. Nevertheless, in the Gayasan poetry, Hongryudong itself is depicted as Mureungdownon.

Choe Chiwon is a historical figure, but his records are incorporated into the world of myths. The memory of the group is non-historical, and the memory of the historical event of seclusion is remembered as a symbol of becoming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in paradise. These memories become a link between the landscape and the narrative, and enable intertextuality.

Key Words : Choe Chiwon, Haeinsa temple, Cultural landscape, Taoist hermit, Paradise, Intertextuality, Literary archetypes

노성미

소속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sm108304@kyungnam.ac.kr

이 논문은 2021년 1월 29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19일 게재 확정됨.